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신행터임스 편집국장

일본정부가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시설 23개소를 하나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켰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독일 본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군함과 대포를 만드는 조선소나 군수공장, 석탄과 광물을 캐내는 탄광 등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의 아성을 갖지않을 수 없으나,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이러한 산업시설들을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본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중심의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신청한 영문 명칭은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이다.

발언대

94년 개혁정신을 기리며



범음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21년 전 천지를 깨우든 커다란 외침이 있었으니, 그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가 '종단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불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은둔의 관행과 병폐의 골레를 벗어던져야 한다. 어용불교를 청산하고, 종권 다툼과 주지자리 다툼의 현장을 지워야 한다. 불교개혁은 시대적 당위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새로운을 위해 몸부림치자. 흑안과 한풍을 이겨내고 승가 본연의 청정 가풍을 일으켜 세우자. 반야의 검을 치켜들고 장엄하게 불교개혁의 대열로 나서자. 금강역사의 힘으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당시의 선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오, 오늘의 종단은 그날의 외침을 아

전쟁 역사를 경제 역사로 미화하다니

즉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적: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인 것이다. 23곳이라 하지만 업종은 철강 조선 탄광산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메이지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무엇이 산업혁명이란 말인가. 단순한 몇종의 중공업업 산업을 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데는 일본 나름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를 나름으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일본인들이 자신들 근현대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만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전쟁범죄, 침략의 역사를 경제적 성과로 미화하려는 의도다. 앞의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들은 일본을 근대화하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일으키게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침략전쟁의 무기창이었던 것이다.

이 침략전쟁의 무기창을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호도하여 일본 근대화의 발원지로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23개 산업시설 중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히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해

저탄광 등 7곳은 조선인 5만 7900명이 강제징용돼 '강제노동'을 한 곳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등재기에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명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이를 성사 시켰으나 일본은 영문 원문의 해석을 희석하여 '강제노동'은 아니라고 사후에 말장난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강제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중대 범죄임에도 일본은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주요 일간지를 보면 지난 5일 일본대 표단은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동에 했다(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는 점을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한국 대표단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음"이라고 화답했다.

일본이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느냐 만큼 전달까지 우리 연설에 포함시키려 했던 '강제노동(forced labor)'이란 표현을 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forced labor 나 forced to work이 다같이 '강제노동'임을 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

은 이와같은 결정문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임의적인 번역을 통해 "강제로 노역을 했지만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희석화 작업을 하고 나선 것이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등재 결정이 지난 5일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 노역자들이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일본 대표의 말은 '강제노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일본정부의 번역문에서도 forced to work을 "일하게 됐다"라고 하여 강제성을 피하려 했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강제성에 대한 영문해석을 강제가 아닌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징용이 당시로서는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정부는 세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진정한 이웃으로 먼 미래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면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대화를 터야하고, 소인배적 말장난은 집어 치워야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는 결단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귓전 때리는 '조계종 개혁 선언문'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개혁정신을 희석되고 망각되었다. 개혁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끝내 보수화되고 기득권화한다. 세간의 논리가 절집가공에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해왔다. 그렇게 외쳤건만 새로운은 한사코 거부되었다. 시대적 요청은 때마다 관습적으로 호명될 뿐 실천되지 않았다. 청정 가풍은 이미 오래 전에 오염되었으며 어용불교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종단에 원칙과 기준이 사라졌다. 이렇듯 혼탁하고 유신을 거부하며, 잘못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필경 멸불(滅佛)과 멸종(滅宗)에 이르고 말 것이다. 조계종 운영과 관리 질서가 붕괴되고, 해불과 해종의 먹이사슬 양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조속히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교장사를 해서 사익이나 추구하는 범죄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고위직 승려들에 의한 대소 비리는 승가정신을 잃고 종헌종법을 가버어 여기저기 다투어 사익을 추구함에 기인한다. 종단이 몇몇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그래서서는 안 되는 어른들마저 여기

에 부화뇌동하여서 종헌종법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찌 승가라 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해도 호통을 치고 바로잡으려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이 계시면 서로 제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그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힘없고 답답한 대중은 선지식의 추상같은 호령을 갈구하지만 헛기침 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다.

사바의 고통에 눈감고 귀 닫은 채 은둔의 관행 또한 여전하였고 그토록 끊어내고자 했던 병폐의 골레는 세월을 먹은 콘크리트처럼 도리어 더욱 단단해지고 말았다.

문수의 지혜검은 녹이 슬고 보현의 행원은 멈추었으며, 관음의 자비는 자취를 감추었다. 어찌해야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과 분노, 자괴감에 빠져 허덕이는 때 다시 그날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고자,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고, 간절했던 그날의 정신을 새로이 다듬어 기쁘게 실천해가자고, 그래서 부다가

림이 진리임을 증명하자고 분명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회의'이다. 혁신과 불교중흥의 시대적 소명을 완성해 나가고, 대중의 의지를 모아 금강역사의 힘으로 모였다. 모두는 이들을 위해 서원의 향을 사루고, 동참의 촛불을 켜고, 성취의 절을 울리자. 그리하여 온 세상에 문수보살의 지혜가, 보현보살의 행원이, 관음보살의 지혜가 넘쳐흐르며, 천백억화신 부처님께서 나투시도록 하자.

종단이 94년도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시에는 새로운 불교사를 창달하는 역사적 차원에서 여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종도의 공의에 의해 이뤄지는 준엄한 과정이어야 한다. 사면이 종단발전과 화합의 길일 때만이 명분이 서는 것이다. 21년 전 4월 10일에 온 세상을 향해 선언한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선언문'이 다시 귓전을 때리고 가슴이 뛰도록 하자. 파사현정! 우리 불교와 조계종을 멋있고 아름답게 장엄해 나가자!

社說

백제 불교 문화 부흥의 계기삼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12건의 세계유산에 보유하게 됐다. 등재지역은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총 8곳이다.

이번 등재로 평화적이고 창조적이며, 우호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파해 온 백제가 안팎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교 국가였던 백제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이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다. 익산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이번 등재과정에서 평가받았다.

등재지인 부여 정림사지도 사비도성 내 유일하게 석탑이 남아있는 사찰터라는 점과 당시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일본의 고대 사

찰인 시텐노지(四天王寺)와 같은 양식으로 백제의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보여 주는 단초다.

사실 백제 문화는 그 위상에는 걸맞지 못하게 인지도가 떨어졌다. 특히 백제의 불교는 일본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일본 정치와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내는데도 추앙을 받고 있는 쇼토쿠(聖德) 태자는 고구려 승려인 혜자와 백제 승려인 혜총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5계를 수지했다. 또한 일본 대표 사찰 중 하나인 도다이지(東大寺)는 백제 도래인의 후손 행기 스님의 화주로 건립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백제 불교에 대한 연구와 문화 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은 국가적으로 반성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하고, 관광객 방문에 대한 대비와 함께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

세계화 시대, 디지털 해외 신도교육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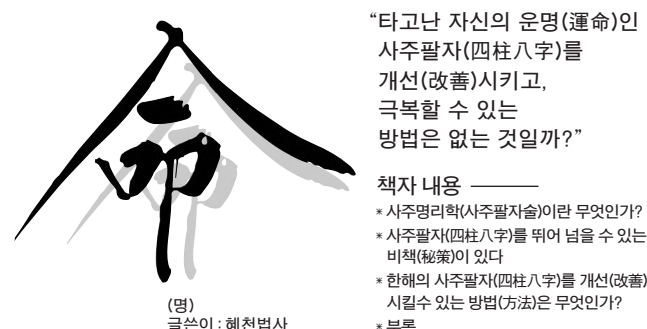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미국·캐나다 지역 전법순례를 다녀왔다. 종단 차원에서 포교정책 관련분야 스님들이 미동부 전법순례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주목을 끌었다. 보름 남짓 다녀온 이번 순례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 순례단은 신도층 고령화, 어린이 포교 참여 등 해외지역 포교 현황 문제를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전법네트워크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내 사찰 간 자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미동부교구어린이불교캠프 개최도 구상 중이다 밝혔다. 또한 해외 포교사 역량 증대와 디지털대학 교육 서버 개선을 핵심적으로 진행한다.

미국에는 한국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해외 포교사 활동이 활발했

지만 현재는 미비한 상태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포교사 양성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도입해 역량 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디지털대학교육도 절실하다. 서버 개선을 통해 해외 신도들도 종단 포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에 발맞춘 디지털 신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해외 신도들에게도 국내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미국은 사찰이 종교법인법을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사찰별 연계를 쉽지 않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의 해외 포교사 역량 증대와 디지털대학 교육 서버 개선을 핵심적으로 진행한다. 미국에는 한국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해외 포교사 활동이 활발했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yeon-daebulgy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팔자(사주팔자)이론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무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학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연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